

한국정치사상의 원형 탐구*

—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

안 외 순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I. 서 론

II. 한국정치사상의 원형 탐색

1. 국가이념: 홍익적 共存主義
2. 통치이념: 유교적 仁義主義
3. 외교이념: 현실적 事大主義
4. 문화이념: 중화주의와 民族主義
5. 聖/俗이념: 儒主佛補의 聖/俗 調和主義

III. 결 론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B00014).

<국문 요약>

현존하는 最古/最高의 한국 역사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대해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지만 본 연구는 후자가 전자를 보완하는 관계의 상보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정치사상의 원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적어도 정치사상 측면에서는 『三國遺事』 역시 『三國史記』와 공통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 결과 두 저서 공히 국가 최고이념으로서는 홍익적 공존주의를, 통치이념으로는 유교적 仁義主義를, 외교이념으로는 현실적 사대주의를, 문화적으로는 보편적 문명추구의 中華主義와 자주적 민족주의를, 聖/俗 이념에 있어서는 조화를 추구하되 儒主佛補, 俗主聖補의 관점에 있음을 논증하였다. 『三國遺事』 역시 주로 불교적 소재를 가지고, 불교적 형식으로, 궁극적으로는 불교적 초월세계를 지향하였지만, 세속세계, 특히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지향가치는 별개가 아니었던 것이다.

주제어: 『三國史記』, 『三國遺事』, 한국정치사상, 인의주의, 중화주의, 민족주의, 사대주의, 성속화해.

I. 서론

한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그 민족의 공통된 ‘전통’이나 ‘역사의식’이다. 그것은 특정 실체를 지닌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구성하면서 끊임없이 현재의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역사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심지어 ‘발명’하거나 ‘재창조’하면서까지 자기 역사를 새롭게 왜신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왔던 것이다.¹⁾ 결국 ‘전통’은 언제나 ‘온고(溫故)’와 ‘지신(知新)’의 핵심에 위치하면서 당대적 사유의 정체성을 모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 민족의 전통 혹은 그것의 원천인 공통의 경험은 대개 그 민족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이나 고전적 저술의 형태로 전승된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식과 관련된 것일 경우 특히 역사서(歷史書)의 형태로 전승되고 계승되기 되기 마련이다. 요컨대 특정 민족이 보유한 민족적 수준의 역사서의 보유나 그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해당 국민이나 민족의 지적 수준이나 자부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민족적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 민족과 전통 혹은 역사를 통한 정체성 형성건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한민족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이상적 이념의 원형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빼놓고 말하기 어렵다. 『삼국사기』가 김부식(金富軾)이라는 12세기 최고 유학자에 의해서 ‘삼국의 역사를 ‘하나의 한민족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기술한 관찬 사서라면, 『삼국유사』 역시 일연(一然)이라는 13세기 최고 불교지식인에

1) 홉스바움, 최영석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37-53; 이승환, 「누가 전통을 욕되게 하는가」, 『전통과 현대』 창간호, 1997, 195쪽; 안외순, 「세계화/정보화시대 동아시아 전통가치의 계승과 변용」, 『동양철학연구』 41집, 2005, 354-355 참조.

의해서 몽골 침략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삼국사기』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된 내용들, 곧 ‘삼국의 유사(遺事)’들을 한 자리에 모은 역사서이다.

사실 양자의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대체로 양자를 대조적으로 이해하였다. 이 경우 대부분 전자는 주로 사대적이고 후자는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전자는 유교를 지향하고 후자는 불교를 지향하며, 전자는 권력투쟁적이라면 후자는 탈세속적이고 비정치적인 것을 지향하며, 전자는 합리적 사관을 가진 반면 후자는 비합리적 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이해해왔다.²⁾ 그리고 이 경우 최근에는 ‘전자는 사실적 연관관계를 기술해야 한다고 믿음으로써 역사와 신화를 엄격히 구분했지만 후자는 사실적 연관관계의 배후에서 작용했던 상징적 힘들을 추적함으로써 역사와 신화의 접합을 추구했고, 전자와 후자는 역사와 문학이라는 차이도 있어서는 현실과 허구로 나뉘지만 많은 사람이 믿는 허구는 진실이 된다는 차원에서 현실 이상의 진실 효과를 발휘한다고

2) 1990년대까지는 대체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였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 이전 한국과 일본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佐藤將之, 1995, 「三國史記의 政治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9-27 참조. 이후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강래, 2003 「삼국사기론, 그 100년의 궤적」 『한국고대사강좌』 제1권(한국고대사연구 100년) 참조. 高柄翊, 1969, 「三國史記에 있어서의 歷史敍述」; 고익진, 1982, 「삼국유사찬술고」 『한국사연구』 38; 박진태 외, 2002,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백산자료원, 1986, 『삼국유사연구론선집』 1, 백산자료원; 신복룡, 2011, 『한국정치사상사』(상), 지식산업사; 이은봉 엮음, 1994, 『단군신화연구』, 온누리; 정구복, 『삼국사기의 현대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진덕재, 「민족주의 사학자의 『삼국사기』 인식」, 『역사와 현실』, 62권, 2006; 최남선, 1924, 「檀君古記箋釋」, 이은봉 엮음 『단군신화연구』, 온누리; 최남선, 1930, 「고조선에 있어서 정치규범」, 『조선학보』 1930년 8월; 今西龍, 1930, 「朝鮮古史の研究」 『高麗史研究』; 末松保和, 1966, 「舊三國史と三國史記」 『靑丘史草』 2; 三品彰英, 1954, 「三國史記高句麗本紀의 原典批判」 『大谷大學研究年報』 6; 高寬敏, 「三國史記의 國內原典」 『朝鮮學報』 39집, 1991; Sultz, E. J, 1991, 「金富軾과 三國史記」 『한국사연구』 73집 (서울대 국사학과); 존. 씨. 재미슨, 1969, 「羅唐同盟의 와해」 『역사학보』, 44; Jamieson, J. C, 1969, *The Samgusagi and the Unification War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Ph.D. 등 참조.

이해하기도 하였다.³⁾

그런데 이러한 제반 성향이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두 서적의 정치사상적 지향, 곧 국가운영에 대한 방법까지 상이하지는 않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로 고려 역시 종교는 모두 불교를 공인했지만 정치의 공히 유교 이념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양자의 정치이념적 지향은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글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동일한 특성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⁴⁾

양서는 모두 당대까지 형성된 한민족의 공동체의식을 전제로 하여 각각 12세기와 13세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술된 것이기에 국가생활 전반의 염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두 사서가 기본적으로 현전하는 한민족의 가장 오래된, 그러면서도 가장 권위 있는, 곧 현전하는 최고(最古)/최고(最高)의 역사서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토대로 한국정치사상의 원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두 문헌은 가장 오랜 시간 한국인의 의식 속에 국가공동체에 대한 원형적 이미지를 전달/계승하며, 민족적 정체감을 형성/재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 원천적 문헌이다.⁵⁾ 여러

3) 김기봉·김미애·김혜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 역사와 문학의 만남」, 『시민인문학』, 16, 2009. 85-89 참조.

4) 이 글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 방면으로 정치사상 차원에서 두 문헌을 접근한 기존연구로는 Shultz, E. J, 1991, 「金富軾과 三國史記」 『한국사연구』 73집 (서울대 국사학과); 佐藤將之, 1995, 「三國史記의 政治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김석근, 1997, 「『삼국유사』와 ‘정치학’의 만남에 관한 작은 보고서」 『정치외교사논총』, 17집; 신복룡, 『한국정치사상사』(상), 지식산업사, 2011, 49-438; 안외순, 「『三國遺事』에 관한 정치학적 一讀」 『溫知論叢』, 23집, 2009 등이 있다. 정치사상은 아니지만 국제정치학 시각에서 『삼국사기』를 깊이있게 분석한 문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대열, 2011, 『삼국통일의 정치학』, 까치 참조.

5) 물론 『삼국사기』 이전에도 역사서는 존재했다. 『留記』를 비롯한 삼국 시대의 사서들, 崔致遠의 『常王年代曆』, 김대문의 업적, 『編年通載』의 속편 등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문헌은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사순, 「한국 유학의 흐름과 『삼국사기』」, 『정신문화연구』 24, 2001, 49 참조.

가지 측면에서 대조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두 저서에 피력된 혹은 기술된 정치적 사유는 천년이 넘도록 한민족의 민족적 정치이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민족의 정치이념을 기억, 재생산해왔다. 예컨대 한민족이라면 수도 없이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신화를 접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해왔고, 『삼국사기』 열전의 김유신조 및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숭한 대중용 구비스토리텔링들을 보면서 한국적 정치지도자와 영웅상을 내면화시켜왔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그것이 지닌 유교적 색채와 불교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치공동체관에 있어서는 동일한 목적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정치사상의 원형의 성격을 탐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국가이념, 통치이념, 외교이념, 문화이념, 성숙관념 중심의 고찰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적어도 정치공동체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단군신화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성/속의 화해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II. 한국정치사상 원형적 성격

1. 흥익적 共存主義

한 민족의 ‘건국신화’에는 해당 민족의 정치공동체가 염원하는 공동체의 최고이상과 이념이 담겨있다.⁶⁾ 이 점에서 <단군신화>를 비롯한 한국 고대 건국신화들 역시 한국인의 공통적인 정치적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치이념적 원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논문에서 신화

6) ‘단군신화’의 정치사상적 의미에 대한 대표적인 기존연구로는 최남선, 1924, 「檀君古記箋釋」, 이은봉 엮음 『단군신화연구』, 온누리; 김석근, 2002, 「‘단군신화’와 정치적 사유: 한국정치사상의 시원을 찾아서」 『한국정치사상사』, 이재석 외, 집문당; 최민자, 「단군조선의 건국이념과 정치사상」,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정치사상사: 단군에서 해방까지』, 백산서당, 2005; 신복룡, 『한국정치사상사』(상), 지식산업사, 2011 중 제2장, 49-77 등 참조.

를 텍스트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⁷⁾

한국의 건국신화의 공통적인 특징을 들라면 무엇보다도 홍익적 공존주의(조화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스로마신화를 비롯한 많은 외국 건국신화의 경우 갈등적 구성을 띠는데 반해 <단군신화>를 비롯한 한국의 건국신화에는 갈등구조가 전무하다고 할 만큼 부재하다는 점이다. 대신 강자가 약자의 청을 들어주거나 부조(扶助)하는 성격을 보인다.

1)옛날에 환인(桓因)[제석(帝釋)을 이른다]의 서자(庶子) 2)환웅(桓雄)이 있었다. 3)자주 하늘아래 세상에 뜻을 두어 4)인간세상을 구제하기를 탐냈다. 5)그 아버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산을 내려다보니 6)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 했다. 7)이에 환인이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가서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8)환웅은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 이곳을 9)신시(神市)라 하고, 이 분을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고 하였다. 그는 10)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11) 모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12)세상에 임하니 다스림이 이루어졌다. 13)이 때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서 살고 있었다. 14)항상 신(神)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였다[원화위인(願化爲人)]. 15)이때 신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1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16)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으니, 17) 삼칠일[21일]을 삼가여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삼가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18)웅녀는 더불어 혼인할 사람이 없기에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를 축원하였다. 19)이에 환웅이 임시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20)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불렀다. ……」⁸⁾(단락

7) 물론 일부 일본학자들의 경우 단군신화에 담긴 정치적 의미에 대해 의도적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것이 ‘고려 중기 이후의 불교와 도교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고려시대에 무격(巫覡)들이 선인 왕검을 꾸며서 단군신화를 만들었다’ 식의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8) 『三國遺事』 卷一, <紀異>, 古朝鮮.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

구분과 번호는 필자가 임의 부기)

첫째,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볼 때 전형적인 ‘천(天)-지(地)-인(人) 조화’ 혹은 ‘신-인간-동물(자연)의 조화’의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천-지-인 삼재의 조화’ 논리는 이후 한국인의 기본적인 의식구조로 자리잡았다. 위의 예문은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단군(檀君)의 탄생은 처음부터 인간을 돕겠다는 하늘(환인 桓因)의 아들 환웅(桓雄), 곧 천신(天神)과 땅의 세계를 대표하는 동물인 곰과 호랑이의 자기극복 과정에 승리한 후에 이를 통과한 곰이, 곧 지물(地物)이 인간으로 잠시 변화하여 진정한 인간(人間)을 탄생시킨다는 구조이다. 다시 말해 신성한 신의 영역(1-12)과 인간의 다른 배경인 동물의 세계(13,16)가 인간의 영역(4,6,11,12,14,16,17)에서 결합하여(18,19) 진정한 또 다른 인간으로 잉태/탄생된다(20)는 구조인 것이다. 요컨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융화”⁹⁾ 구조인 것이다.

둘째, 천상의 존재인 환웅이 한반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정복이나 갈등양상이 아니라 ‘홍익(弘益)’, 곧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상호(相助)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신의 아들인 환웅(桓雄)은 처음부터 하늘보다는 인간세상을 구하는데 관심이 있었고(3,4), 하늘의 천자인 환인도 그 뜻을 알고 도와주기 위해 지상을 내려다보다가(5) 삼위태백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지역’이라는 판단이 서자(6) 아들을 내려 보냈다(7).

也。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時有一熊一虎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 曰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熊女者 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 9) 최민자(2005), 61 참조. 물론 이를 역사적 실재로 보고 각 부족들과의 경쟁과 공존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환웅족은 한족(韓族: 환족桓族) 또는 아사달족, 곰족은 고구려족, 호랑이족은 예족이었을 것이며, 호랑이족도 연맹체에 가담했지만 그 사회의 주된 세력은 되지 못하였다.” 윤내현, 『우리고대사』, 지식산업사, 2003, 48쪽. 문제는 이렇게 역사적 실재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갈등이 아니라 공존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이 글의 논지와 상반되지 않는다.

이미 환웅이 지상에 내려오는 의도 자체가 정복 등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세상을 돕고자 내려오는 구조인 것이다.

셋째, 환웅이 내려와서 한반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정복민족의 출현과 기존 토착세력들 간의 동거과정에서 으레 보이기 마련인 충돌/불화 성격도 없이 여기서는 공존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삼위태백에 신시(神市)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갈등이 없을(8-11)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존에 있던 지상세계의 대표인 곰이나 호랑이 등의 소원까지 들어주고(14), 이들이 원하자 결혼까지 해준다(15). 게다가 태초로 단군이라는 인간의 존재가 탄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과 동물의 영역에서 인간이 배태되는 것이 아니고 양자 모두 잠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인간을 탄생시키는 구조(17,19)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신과 곰이라는 이질적 존재에서 인간이란 이종(異種)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인간화, 곰의 인간화를 통해 인간이 ‘진정한 인간’을 탄생시키는 구조를 취하는 구조이다. 이는 다분히 인간 친화적 구조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단군신화>에서 보이는 구조는 갈등과 배제, 정복의 논리가 아니라 신도, 동물도, 인간도 각각 한반도 영역에 내려오는 과정은 물론 정착하는데 있어서 인간 스스로를 다스릴 ‘단군’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신이나 동물의 세계가 인간으로 흡수통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본래의 존재로 존재하면서 새로운 요소의 하나로 인간을 탄생시킴으로서 천/지/인 삼재(三才)가 모두 공존하는 구조를 취한다는 것이다.

2. 통치이념: 유교적 仁義主義

사실 정치(政治, politics)란 ‘합법적 폭력’을 사용하여 정치공동체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합법적 폭력’이란 법을 비롯한 기타 국가적 강제력을 의미한다. 요컨대 정치란 ‘정(政: 공권력, 바른 강제력)’을 써서 ‘치(治: 다스려짐, 문

명상태)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만일 정치가 공권력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닌 것이다. 즉 ‘정치답지 못한 정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정치세계에서 ‘정치답지 못한 정치’를 흔히 목도한다. 하여 공자(孔子) 역시 ‘정치답지 못한 정치’가 또 다시 전개되었던 춘추시대를 목도하면서 ‘공권력은 바르게 사용하는 것’, 곧 ‘정자정야(政者正也)¹⁰⁾가 정치의 탄생이유임을 재천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유교정치의 기본노선이 된다. 즉 덕치, 그리고 그것의 외화된 표현인 예치는 법치, 그리고 그것의 외화된 표현인 형치보다 우위의 정치인 것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유교적 정치이념이었던 것이다. 사실 덕치(德治)와 법치(法治), 예치(禮治)와 형치(刑治)에 관한 논쟁은 모두 인간의 두 본성에 기인한다. 선과 악의 본성이 그것이다. 유교에서는 선의 본성을 강조하는 반면 법가에서는 악의 본성을 강조한다. 현실에서 악의 본성을 강조하여 강제적인 법치에만 의존한다면 인간의 삶이 각박하여 행복하다는 느낌은 최소화될 것이다. 반대로 선의 본성을 강조하여 덕치에만 의존한다면 현실에서 이것이 실현된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질서로 빠질 수 있는 우려점 또한 적지 않다. 양자 모두 필요하다. 양자 모두 필요하되 덕치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에 기인하고 법치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덕주형보의 정치공동체가 최상의 정치공동체라고 하겠다. 때문에 공자도 “법소송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나도 남들과 같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송사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함이다.”¹¹⁾ “정령(政令)으로 가르치고 형벌(刑罰)으로써 억제한다면 백성들은 죄만 면할 뿐 양심이 없다. (그러나) 도덕(道德)으로 가르치고 예제(禮制)으로써 억제한다면 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하게 된다.”¹²⁾라는 언술에서 보듯이 덕치/예치가 법치/형치보다 우위임을 천명

10) 『論語』「顏淵」.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11) 『論語』「顏淵」.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주희 주석-范氏曰 聽訟者 治其末 塞其流也 正其本 清其源 則無訟矣”,

했던 것이다.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의해서,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서적의 정치이념이 상이한 것은 아니다. 고려의 국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정치이념으로 국가를 인도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양자 모두 유교적 덕치주의, 곧 인의주의(仁義主義)를 추구하고 있다. 유교의 덕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정(仁政)의 실현, 곧 인의(仁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불교와 도교의 수용과 함께 정치행정 이념으로서 유교를 수용한 고구려, 신라, 백제 역시 이러한 덕치, 곧 인의의 정치의 실현을 국가의 이상으로 간주한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삼국사기』에서는 무수히 많은 빈도로 ‘인(仁)과 의(義)’의 가치를 적시한다. 이는 그만큼 인/의의 가치가 이 저서에서 중요한 가치임을 말한다. 『삼국사기』에서는 ‘인정(仁政)’을 베풀지 못하는 임금은 바뀌야 한다는 방벌(放伐) 류(類)의 사유가 강하였다.¹³⁾ 인과 의는 각각 단독 개념으로 쓰이거나 복합 개념으로 쓰였다. 보편적인 도(道) 개념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에서는 『논어(論語)』, 『맹자(孟子)』에 나오는 ‘인/의’의 덕목의 실천 여부와 관련되고 있다.¹⁴⁾ 예컨대 덕치적(德治的) 인정(仁政)의 필요성을 인정한 설총(薛聰)이 <화왕계(花王戒)>를 통해 왕의 수양에 의한 도덕적 권위 확보를 가르친 점을 전형적이 예로 들 수 있다.¹⁵⁾

仁義는 공자 맹자에서부터 효·충과 연관된 도덕적인 시각으로 설명되기도 했지만, 그 못지않게 정치적 측면으로 사용되었다.¹⁶⁾

12) 『論語』, 「爲政」.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13) 『三國遺事』 卷四十五, <明臨答夫>, 四十九, <倉租利> 참조.

14) 佐藤將之, 『三國史記』 政治思想의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54-192 참조.

15) 『三國史記』 卷46, 列傳 6. <薛聰> “聰曰 唯 臣聞昔花王之始來也. 植之以香園 護之翠幕 當三春而發艷 …… 花王曰 丈夫之言 亦有道理, 而佳人難得 將如之何 …… 於是 王然作色曰 ‘子之寓言 誠有深志 請書之 以爲王者之戒.’”

16) 윤사순, 2002, 51-52 참조.

또 忠, 孝, 禮, 智, 信, 德, 勇, 道 등이 응용되고 있기도 하다. 『삼국사기』에서는 후대의 충(忠)/효(孝) 개념보다도 ‘인과 의’를 특별히 많은 빈도로 중시했다는 것은 삼강오륜의 도덕적 시각과는 좀 다른 각도로 이해될 만한 특징이다. 당시 충(忠)과 효(孝) 개념 역시 대체로 유학의 핵심 개념 그대로의 의미로 중요시되었다.¹⁷⁾

『삼국유사』의 직접적인 언술이나 소재 등이 불교적이라고 해서 정치 의식 역시 불교적일 것이라고 간주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곧 『삼국유사』의 국가관 혹은 정치관은 ‘불교적 언어로 씌어진 유교정치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교적이다. 적어도 정치공동체라면 유교적 인의(仁義)의 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삼국유사』 역시 『삼국사기』 못지 않다. 그 예로 두 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 <단군신화>의 서두인 「기이(紀異)」편 <서(序)>에 기술된 다음 진술이 그 예다.

“대저 옛날 성인(聖人: 공자를 지칭함-필자 주)께서는 바야흐로 예악(禮樂)으로 나라를 흥하게 하고 인의(仁義)로 교화를 베푸시고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제왕(帝王)이 처음 일어나려 할 적에는 부명(符命)을 주고 도록(圖籙)을 받도록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점이 있는 연후에야 대변(大變)을 타고 대기(大器)를 잡아 대업(大業)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¹⁸⁾

지금까지는 위 인용문과 관련하여 공자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지만 일연(一然) 자신은 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말하는 맥락에서 주목해왔다. 물론 이는 맞는 해석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대목이 함의하는 바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예문의

17) 佐藤將之, 『『三國史記』政治思想의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89-136 참조.

18) 『三國遺事』卷一, <紀異>, 序. “大抵 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教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命 受圖籙 必有以異於人者 然後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

메시지는 1) ‘공자께서 예악(禮樂)과 인의(仁義)로 정치를 하시고 괴력난 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은 분명 대구(對句)가 있는 진술이다. 곧 2) ‘제왕(帝王)이 처음 일어나려 할 적에는 부명(符命)을 주고 도록(圖籙)을 받도록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점이 있는 후에야 대변(大變)을 타고 대기(大器)를 잡아 대업(大業)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듯이 평상시와 창업기의 구분을 둔 구절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 혹은 일연도 1) 공자(孔子)를 성인(聖人)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 2) 창업기와 달리 평상시에는 예악과 인의(仁義)의 정치가 최고의 정치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다만 그는 국가나 왕이 ‘처음’ 출현하는 경우에는 남다른 비상한 점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일 뿐이다. 요컨대 제왕이 처음 출현하는 정치공동체 형성기에는 신화적 존재나 영웅들이 출현하기 마련이라는 것¹⁹⁾을 인정한다고 해서 평상시, 곧 수성기의 정치가 예악과 인의의 정치여야 한다는 공자의 언명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인용예문에서 보듯이 『삼국유사』는 첫 대목에서 이를 인정한 위에 다만, 창업기일 때는 『삼국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건국신화를 수록하겠다는 말이었다. 때문에 본 내용에서 상시적인 인정(仁政)의 예 혹은 인/의 및 효의 무수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문명 탄생기에 출현하는 신성한 존재들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보편화의 시도였던 것이다. 물론 이는 그것의 고려적 과정이 정당한 것이라는 논리를 유도하는 입론작업이었다.²⁰⁾ 어쨌든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삼

19) 사실 지금까지 이 대목은 일연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유교에 대해 비판하면서 『삼국유사』를 서술한 예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일연은 평상시와 창업기를 구분하여 인식하면서 공자조차도 창업기의 신성한 정치지도자 출현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리라는 식의 해석이 더 정당하다고 본다. 이는 원문의 ‘方’자와 ‘將興’이라는 글자 및 문맥에 주목하여 해석할 때 그렇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기서는 더 상론할 여유가 없으므로 추후 별도(別稿)를 기약하기로 한다.

20) 이는 중국의 삼황오제와 동격화 작업이었다고 하겠다. 하도(河圖)/낙서(洛書) 출현을 드는 것으로 중국문명의 시작의 상징인 복희(伏羲)와 우(禹) 임금의

『삼국유사』 역시 정치에서는 인의/예악의 정치가 최고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평상시, 이를테면 수성기라면 공자가 말한 대로 예악과 인의의 정치가 필요하지만, 창업기라면 건국신화 식의 영웅담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의 누락된 부분,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는 저술이라는 점과 더불어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갖는 대목인 것이다.

물론 『삼국유사』에는 직접적으로 인정(仁政)이나 유교적 인/의/충/효가 구현되기를 원하는 내용들은 수없이 많다. 불교적 혹은 민간적 설화 형식을 띤 것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메시지는 ‘밖에서는 국가에 충성하고, 안에서는 가정에 효도하는’ 유교의 ‘국(國)-가(家) 인/의(仁義) 논리인 것이다. 전형적인 예를 충담사(忠談師)의 <안민가(安民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주시오.” 충담은 왕의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왕은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왕사(王師)로 봉했으나 충담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안민가는 다음과 같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스런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은혜를 알리.
꾸물거리면서 사는 만물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알리.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는 태평하리이다.’²¹⁾

정치질서 출현과정도 신이(神異)함이었음을 논증하고 삼황오제(三皇五帝)를 비롯한 중국의 성왕/성인, 심지어 한(漢) 고조(高祖)의 탄생설화 등을 빌려 온 것도 같은 작업이다. 『三國遺事』 卷一, <紀異>, 序. “故 河出圖洛出書 而聖人作 …… 生沛公 …… 豈可殫記”

21) 『三國遺事』 卷一,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 國惡太平恨音叱如”.

3. 외교이념: 현실주의적 事大主義

‘사대’ 혹은 ‘사대주의’라는 용어가 ‘현실주의적 외교노선(realism)’을 의미하는 개념의 의미를 벗어나 맹목적 중국 추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받게 된 데에는 신채호나 최남선의 지적 작업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의 한국지성사적 업적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지만 적어도 『삼국사기』에 대해 ‘중국에 대한 노예사상’이라는 의미에서의 ‘사대주의’ 규정은 정당한 평가라 보기 어렵다. 물론 『삼국사기』에, 특히 일부 사론에서는, 삼국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사실을 사대의 명분에 어긋난다고 비난한 바도 있고, 또 백제 및 고구려가 당에 대해 저항한 사실을 강력하게 비난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런 점들 때문에 모화주의적 사대주의라고 비판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면에서 볼 때 『삼국사기』에 나타난 ‘사대’나 ‘사대주의’는 개념상이든 현실적으로도 다분히 외교적 측면에서 국가를 보존하려는 현실주의적 노선이지 대국을 묵수적으로 따르는 노예주의나 맹목적 추수주의가 아니었다.

우선, 『삼국사기』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대외관계는 『맹자(孟子)』에서 말하는 ‘사대사소(事大事小)’를 실천하여 주변국들과 선린(善隣)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맹자』의 ‘사대사소’란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기준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의 우위를 인정해야 하고, 반대로 강대국은 대국답게 약소국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여 공존의 논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국에 평화를 담보하는 이익이 된다는 개념이다.²²⁾ 『삼국사기』의 우로(于老)가 외교적 언사를 잘못하여 왜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자소(字小: 사소와 같은 의미)’에 어긋난 행위였다는 평가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요컨대 명대신이자 명장군이었던 우로(于老)도 인/의롭지 못한, 곧 외교적으로는 자소(字小)하지 못한 행동 때문

22) 『孟子』, <梁惠王>下. 齊宣王問曰 交隣國有道乎 孟子對曰 有惟仁者 爲能以大事小 是故湯事葛 文王事昆夷 惟智者 爲能以小事大 故大王事獯鬻 踐事吳

에 국가는 전쟁을 치르고 개인은 개죽음을 하였으니, 역사에서도 공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론(史論)이 그 예이다.

7년 계유에 왜국 사신 갈나고(葛耶古)가 사관에 와 있었다. 우로(于老)가 주인으로 행세하며 손님에게 다음과 같은 농담을 건넸다. "조만간에 너의 국왕을 염전의 노비로 만들고, 너의 왕비는 취사부로 만들겠다."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장군 우도주군을 보내 우리를 공격하자 대왕이 유촌에 나가 있었다. 우로가 "지금의 환란은 제가 말을 조심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로는 마침내 왜군에게 가서 말했다 "전일에 한 말은 농담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군사를 일으킬 줄이야 어찌 뜻하였으랴?". 그러나 왜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장작을 쌓아 그 위에 엮어 놓고 불태워 죽인 다음 가버렸다. …… 사가(史家)는 논(論)한다. 우로가 당시의 대신으로서, 군국의 사무를 맡아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또한 이기지 못하더라도 패하지는 않았으니, 그의 모책이 틀림없이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말 한 마디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고, 게다가 두 나라 사이에 싸움까지 만들었다. 그의 아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으나 이것도 역시 변칙이요 올바른 길은 아니었다. 만약 이러하지 않았다면 그의 공적도 기록에 남길 만하였다.²³⁾

둘째, 12세기 당대 기준으로 보면, 『삼국사기』는 충분히 자주적이었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개루왕(蓋婁王)이 간적(姦賊)을 받아들여 이웃나라와의 화친을 깨고 백성을 전쟁터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거나,²⁴⁾ 『삼국사기』는 당나라 태종의 고구려 침략에 대해서도 ‘정벌’이 아니라 ‘침략’이라 규정하면서 이웃나라인 고구려를

23) 『三國史記』 卷45, 列傳 5. <昔于老> “七年癸酉 倭國使臣 葛那古在館. 于老主之 與客戲言. 早晚 以汝王爲鹽奴 王妃爲爨婦. 倭王聞之怒 遣將軍于道朱君 討我 大王出居于柚村. 于老曰 今茲之患 由吾言之不慎 我其當之. 遂抵倭軍 謂曰 前日之言 戲之耳 豈意興師至於此耶. 倭人不答 執之 積柴置其上 燒殺之乃去 …… 論曰 于老爲當時大臣 掌軍國事 戰必克 雖不克 亦不敗 則其謀策必有過人者 然以一言之悖 以自取死 又令兩國交兵 其妻能報怨 亦變而非正也. 若不爾者 其功業 亦可錄也.”

24)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1, 蓋婁王조.

자소(字小)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전쟁만 일삼다가 죽었다고 비판한 것²⁵⁾도 ‘사대사소’식 사대주의 관념의 연장선이다. 『삼국사기』가 철저히 모화주의적 성향을 띠었다면 당(唐) 태종(太宗)에 대해 전쟁광이라는 비난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삼국사기』에서는 중국만이 사용하던 ‘태후(太后)’ 혹은 ‘태자(太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²⁶⁾ 뿐만 아니라 천자만이 지낸다는 제천행사(祭天行事)에 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에 대해 조선 초기 유학자들은 ‘사대명분’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것과 사뭇 상이한 태도인 것이다. 즉 이 부분이 바로 『동국사략(東國史略)』의 저자 권근(權近)이나 『동국통감』의 편찬자들이 『삼국사기』에 대해 사대명분의 예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핵심 내용인 것이다. 때문에 권근이나 서거정 등의 저자들은 각기 자신들의 저서에서 사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표현이나 내용을 개서(改書)하거나 삭제 하였던 동기였다.²⁷⁾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볼 때 위태롭다고 여기거나 부정시할 만큼 당대적 관점에서 보면 『삼국사기』는 모화주의(慕華主義) 대열에서 이탈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4. 문화이념: 中華主義와 民族主義

사대주의 관념이 대외적인 것이라면 이에 짝하는 대내적 관념이 중화주의이다. ‘중화(中華)’ 혹은 ‘중화주의(中華主義)’ 역시 ‘사대주의’ 만큼이나 왜곡된 이해가 많은 단어이다. 본래 ‘중화’란 용어는 중국 주(周)나라의 종족인 ‘화(華)’의 명칭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중화주의’는 지역성, 종족성, 문화성을 가진 개념이었다. 하지만 유교(儒敎)가 중화주의 개념을 수

25) 『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下, 8년, <論曰>.

2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眞興王 卽位 조

27) 한영우, 1981 「15세기 관찬사서 편찬의 추이」과 「東國通鑑의 편찬경위와 역사서술」 『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5-33쪽, 180-188쪽 참조.

28) 진덕재, 「민족주의 사학자의 『삼국사기』 인식」, 『역사와 현실』, 62권, 2006, 187 참조.

용하게 되면서 중화주의는 지역성과 종족성을 탈피하고 ‘높은 문화적 성격과 도덕적 성격의 문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 곧 중화란 ‘최고 수준의 문화, 도덕의 문명’을 의미하게 되고, 중화주의 역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의 중화주의적 성격도 바로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 모화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편년체 서술과 사론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편년체 또한 당대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문화주의, 곧 중화주의 혹은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온당하다. 앞 절에서 『삼국사기』의 사대주의가 몰주체적 모화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사대주의임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대응하는 이상주의(idealism)적 개념을 중화주의라 한다. 즉 대내적 문화 차원으로 보편적 중화주의인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중화주의의 또 다른 한 면은 민족주의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이러한 양 면을 다 가지고 있다.

[1] 첫째, 『삼국사기』는 보편적 문명화의 대열에 동참하는 중화주의 노선을 추구한 전형적인 저서이다. 이는 문화주의 혹은 문명주의 노선이다. 중국의 역대왕조는 물론 유교에서 공자에 바로 뒤의 위상이라 하여 ‘아성(亞聖)’으로 꼽히는 맹자(孟子)의 권위를 빌려 ‘훌륭한 국가라면 그 사적이 역사서에 수록되어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신라/고구려/백제 삼국의 역사는 충분히 역사서에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질 만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내용이 『삼국사기』의 저술의 변이라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즉 삼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와 동일 반열에 놓을 수 있으며, 『삼국사기』 저술은 바로 이러한 문명화 작업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臣) 김부식(金富軾)은 아뢰나이다. 옛날 열국에서도 각기 사관을 두어 사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맹자(孟子)는 ‘진나라의 『승』, 초나라의 『도율』, 노나라의 『춘추』는 모두 역사서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해동(海東)의 삼국(三國)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만큼, 그 사적들이 책으로 저술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감께서) 이리하여 이 늙은 신하에게 편집의 명을 내리셨으나 저의 부

족한 역량을 생각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²⁹⁾

둘째, 또 많은 이들에게 『삼국사기』가 모화적이라고 인식했던 요소인 편년체 작성 역시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단기(檀紀)를 사용하지 않고 서기(西紀)를 사용함으로써 세계적 보편주의에 동참함으로써 세계문명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 선진적이었던 중국의 편년체 방식으로 고려의 역사를 기술하고, 삼국의 위인들을 중국식 열전방식으로 편찬하여 중국에 고려의 위인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또한 최근 10여년 우리의 경제수준이 상승하면서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학의 영어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곧 편년체 작업은 고려의 문화수준을 국제화시키고자 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슈츠(Shultz)는 김부식과 『삼국사기』에 대해 다른 시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12세기 고려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야 하고, 따라서 『삼국사기』는 역사서술과 지배세력의 가치에 대한 최고의 상징이며, 한국의 실체를 밝히려는 진지한 관심에 더하여 지적 성숙함과 국제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던 것이다.³⁰⁾ 『삼국사기』의 이러한 중화주의적 면모는 달리 말하면 고려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의 한 측면이다. 중화주의의 삼국시대적 버전으로 볼 수 있는 삼한의 ‘일통의식’³¹⁾이 고려 중기 및 『삼국사기』 저술시기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점도 『삼국사기』가 중화주의적 면모를 갖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실제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고려 초기 이래 그 직전의 역사를 고구려와 백제, 신라사에 한정시켜 인식한 전통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³²⁾

29) 『三國史記』 卷一 <進三國史記表> .

30) Shultz, E. J, 1991, 「金富軾과 『三國史記』」 『한국사연구』 73집, 서울대 국사학과, 9-19 참조.

31) 한국사에서 전개된 ‘일통삼한의식’에 대해서는 노태돈, 1998,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에서 ‘우리의식’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참조.

32) 진덕재(2006), 191 참조.

셋째, 편년체가 아니라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로 ‘독자적’이라 평가 받았던 『삼국유사』 역시 당시의 보편문명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중화주의 성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단적인 일례로 『삼국유사』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단군조선>의 실재를 증명하기 위해 그 전거를 중국의 사서(史書)인 위서의 권위를 빌리는 점이 그러하고,³³⁾ 단군조선의 시작을 중국에서 가장 성스러운 정치이상향으로 꼽는 요(堯)임금과 동시대로 제시하는 점 등 당대의 ‘문명적 표준시’를 빌려오고 있다는 점이 그 단적인 예이다.³⁴⁾

[2] 중화주의의 이면은 동시에 민족주의 성격도 내포한다. 신채호는 김부식이 중국문화를 모방하기 위하여 한국의 고유한 전통을 포기했다고 하였지만³⁵⁾ 이는 지나친 폄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삼국사기』에 대해 여전히 불교나 고유 신앙과 관련된 사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내용이 소략하다는 지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³⁶⁾ 최근에는 당시까지 전승된 고기나 사서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삼국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크게 이견이 없는 실정이다.³⁷⁾

첫째, 오히려 『삼국사기』는 당시 고려인들로 하여금 단일한 민족공동체로서의 역사의식을 형성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일차적 저술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33) 『三國遺事』 卷一 <紀異>. 古朝鮮 “ 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 開國號朝鮮. ……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謂玄菟樂浪帶方 …… 通典亦同此說(漢書則眞臨樂玄四郡 今云三郡名又不同 何耶)”

34) 『三國遺事』 제1권 <紀異>. 古朝鮮. “與高同時”

35) 申采浩, 1930, 「朝鮮歷史上—千年來第一大事件」 『朝鮮史研究草』(단체 신채호 전집, 일조각, 1970) 참조.

36) 서영대, 「삼국사기와 원시종교」 『역사학보』 105, 1985 참조.

37) 특히 이강래, <3장. 삼국사기 열전의 자료계통> 『삼국사기 형성론』, 신서원, 2007, 265-215 참조.

그런데 지금의 학자와 관리들은 오경(五經)과 제자(諸子)들의 서적과 진(秦)·한(漢)의 역사에는 정통하여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사적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이는 심히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라·고구려·백제는 개국 때부터 삼국으로 우뚝 솟았고, 중국과는 예의로 관계를 맺어올 수 있었습니다. 범엽의 <한서>와 송기의 <당서>에는 모두 (삼국에 관한) 열전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였지만 외국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다룬 관계로 상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삼국의 고기는 문장이 거칠고 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적들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임금과 왕후의 선악, 신하의 충성과 간사함, 국가사업의 평안과 위기, 백성의 안녕과 혼란에 관한 사실들이 후세에 교훈으로 전해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과 견식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하여 자손만대에 전함으로써 우리의 역사가 해외와 같이 빛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³⁸⁾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삼국사기』는 1) 당시의 학자와 관리들이 중국의 오경(五經)과 제자백가(諸子百家) 및 진(秦)·한(漢)의 중국역사에는 정통하지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2) 삼국의 업적이 찬란하여 중국의 사적에 실려 있기는 하나 다른 나라의 일이라 소략하며, 3) 국내에 삼국에 대한 기록이 그 전에 존재하기는 하나, 문장이 거칠고 누락된 사안들이 많아 제대로 작성함으로써 4) 군주 및 지배자들의 선/악, 신하의 충(忠)/간(奸), 국가사업의 평안과 위기, 백성의 안녕과 혼란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후세에 교훈으로 전하고자 편찬되었다. 다시 말해서 『삼국사기』는 고려왕실의 무궁한 발전과 삼국통일의 의의와 하나 된 민족적 구심점을 마련한 것으로 민족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이었다.

둘째, 삼국을 통일하고자 했던 신라의 의도, 한반도를 통치하려는 당나라의 계획에 맞서는 내용을 가장 권위 있는 <본기(本紀)>에 편찬하였다는 것도 바로 한민족 국가의 독립적 전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고려에 대해서도 중국의 정치세력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하지만 중국이 지배야욕을

38) 『三國史記』 <進三國史記表>.

드러난 경우에 대해서는 저항한 사례를 수차 강조한 것으로 보아 삼국의 자주권 수호 전통을 고려에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였다. 또 『삼국사기』에서 삼국의 위인이나 영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동일한 이유이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서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고 완전히 잊혀질 것”이라고 하면서 김유신과 을지문덕 등 국가를 수호한 영웅들뿐 아니라 왕과 왕실에 대하여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다. 나아가 삼국 고유의 제도에 대한 정당화 역시 『삼국사기』의 민족주의적 성격이다. 중국과는 달리 삼국시대에 생겨난 고유한 전통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고려에 적합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⁹⁾ 마지막으로 『삼국사기』는 당대의 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잡이로서 삼국의 사례를 <본기>와 <사론> 등에서 활용 제시, 민족적 난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당대적 문제해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서술목적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뿐만 아니라 왕권을 확고히 계승하여 보다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이자겸(李資謙), 묘청(妙淸) 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인종(仁宗) 대 고려 지배세력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⁴⁰⁾

셋째, 『삼국유사』의 민족주의적 측면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회자되어 왔다.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내용면에서 볼 때 <기이>편 제1은 물론 불법 관련 소재를 다룬 것들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충군, 애국의 민족주의적 요소들이거나 효 등의 유교적 가치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외

39) 물론 이런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에는 분명 중국을 쫓아가지 못하는 삼국만의 풍습에 대해 비루하다는 시각에서 비판한 부분도 존재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삼국사기』가 일방적인 중국추수주의가 아니라 취사선택하는 문화적 개방주의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40) 강성원, 1989, 「묘청의 재검토」 『국사관논총』 13; 김당택, 「고려 인종조의 서경천도, 칭제건원, 금국정벌론과 김부식의 삼국사기편찬」 『역사학보』 170집, 2001 참조.

에도 권1에 <왕력(王曆)> 제1과 <기이(紀異)> 제1, 권2에 <기이> 제2, 권3에 <흥법(興法)>과 <탑상(塔像)>, 권4에 <의해(義解)>, 권5에 <신주(神呪)>와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총 5권 중에 2권이 직접적인 정치사 관련 기술이다. 즉 권1의 <왕력>은 저자의 의견도 간간이 더한 연표(年表)로서 중국의 연대와 함께 신라·고구려·백제 및 가락(駕洛)의 순으로 배열하고 뒤에는 후삼국(後三國), 곧 신라/후고구려/후백제의 연대, 역대 왕의 출생/즉위/치세(治世)를 비롯하여 기타 주요한 정치사적 사실을 간단히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기이>편 1은 주지하다시피 고조선 이하 삼한(三韓)·부여(扶餘)·고구려와 통일 이전의 신라 등 여러 고대 국가의 흥망 및 신화/전설/신앙 등에 관한 유사(遺事) 36편을 기록한 것이다. <기이>편 2는 통일신라시대 문무왕(文武王) 이후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敬順王)까지의 신라 왕조 기사와 백제/후백제 및 가락국에 관한 약간의 유사를 다룬 25편으로, 직접적인 정치사를 다룬 것이다. 게다가 이런 체재적 구성만이 아니라 분량상으로도 직접 정치사를 다루는 1권, 2권이 사실상 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실은 민족주의적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⁴¹⁾

넷째, 『삼국유사』의 일관된 충효적 주제의식은 그 성격이 너무 강해, 심지어는 고려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불교적 사례와 용어를 빌려 설명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만 보면 권3의 <흥법>편은 신라를 중심으로 한 불교 전래의 유래와 고승(高僧)들에 관한 행적을 7편의 글에 나누어 기술하고 있고, <탑상>편에서는 사기(寺記)와 탑과 불상 등에 얽힌 승전(僧傳) 및 사탑(寺塔)의 유래에 관한 기록을 30편에 나누어 각각 실고 있다. 또 권4의 <의해>편 역시 신라 때 고승들의 행적으로 14편의 설화, 권5의 <신주>편 또한 밀교(密敎)의 이적(異蹟)과 이승(異僧)들의 전기 3편을, <감통>편에는 부처와의 영적 감응(感應)을 이룬 일반 신도들의 영험(靈驗)하거나 영이(靈異)한 사건 등을 다룬 10편의 설화를, <피은>은 은둔(隱

41) 안외순(2009), 123 참조.

遁)한 일승(逸僧)들의 이적(異蹟)들에 대해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효선>편 역시 뛰어난 효행 및 선행에 대한 미담을 5편에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의 내용을 보면 이들 일화들 역시, 그 소재가 무엇 이건 간에, 대부분 충효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충(忠)과 애국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일례로 널리 알려진 김유신, 김춘추가 통일대업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관련 기이한 영웅담⁴²⁾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장춘랑과 파랑이 백제의 군사와 황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후 태종의 꿈에 나타나는 내용⁴³⁾, 당나라 장수 이적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까지 습격하려 하자 명랑법사에게 청하여 당나라 군사를 격퇴한 사실 및 만파식적을 불어 통일의 서곡을 올린 문무왕 법민과 관련된 일화,⁴⁴⁾ 황룡사9층탑의 영험으로 운수가 형통하고 삼한을 통일한 사례 및 금관성의 파사석탑의 예를 들어 왜군(倭軍)을 막아온 내용을 전하는 사례⁴⁵⁾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삼국유사』 역시 『삼국사기』 못지않게 민족적 국난 극복 노력의 보고(寶庫)인 것이다.⁴⁶⁾

5. 聖/俗이념: 儒主佛補의 聖/俗 調和主義

성(聖)/속(俗) 개념은 각각 종교와 정치, 신비와 합리, 성역과 세속세계를 대변하는 단어이다. 때문에 전근대 한국사회에서 그것은 각각 불교와 유교로 대변되기도 했다. 아울러 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각기 유교와 불교적 용어로 쓰였다고 하여 각각의 세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었다. 물론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역사서적 성격이 상보적 존재이듯이 두 저서에 나타난 성/속에 대한 정치사상적 사유 역시 상호 조화를

42) 『三國遺事』 卷1, <紀異> 金庾信; 太宗春秋公조.

43) 『三國遺事』 卷1, <紀異> 長春郎 罷郎 조.

44) 『三國遺事』 卷2, <紀異> 文武王法敏; 萬波息笛 조.

45) 『三國遺事』 卷4, <塔像>, 金官城砂波石塔 조.

46) 안외순(2009), 124 참조.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은 유주불보(儒主佛補), 속주성보(俗主聖補)의 조화를 추구하였다고 하겠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의 시작 자체가 성/속의 공존이 괴이할 것이 없다는 변이다. 건국신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창업기에는 당연한 것이므로 기이할 것이 없어서 그 무엇보다 책의 맨 앞에 둔다는 변을 행한 바 있다.

대개 옛 성인께서는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 때에는 괴력난신(怪力亂神: 괴이한 일과 헛된 용맹, 그리고 어지러운 일과 귀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에는 부명(符命)과 도록(圖籙)을 받들어, 반드시 보통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 뒤에야 큰 변화를 타서 천자의 지위를 얻어 왕업을 이루는 것이다. ……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데서 나왔다 한들 어찌 괴이하랴. 이것이 「기이」를 모든 편의 앞에 두는 까닭이다. 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⁴⁷⁾

곧 종교적 사실이거나 정사로 다루기에는 부담이 민간 설화 등 『삼국사기』에서 남겨진 사실들, 곧 유사(遺事)들을 『삼국유사』가 챙긴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성적/합리적 역사의 세계만이 아니라 신비의 세계, 궁극적으로 꿈의 세계, 나아가 성역의 세계 역시 그것이 구성원들의 염원인 이상 현실태이기도 하므로 정치공동체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지인 것이다.

지금까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천년 넘게 나란히 대표적인 역사서의 쌍벽으로 한민족에게 인식되고 사랑받는다는 점 자체가 한국 정치사상의 원형적 사유 속에 이러한 『삼국사기』가 지닌 세속의 정치, 합리의 정치만이 아니라 『삼국유사』가 지닌 꿈의 정치, 염원으로서의 정치의식, 성역으로서의 정치적 속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로서는 합리와 세속 대(對) 신비와 성역을 대표하는 것이 각각 유교 대 불교였다면 오늘날은 유교적

47) 『三國遺事』 卷1, <紀異>

본질은 물론 자유주의 등 제반 세속적/합리적 정치이념 대 불교 및 기독교, 천도교 등의 제반의 종교적 이상들이 여기에 적용될 것이다.

둘째,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의 구조도 전형적인 성과 속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민족의 정치이념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단군(檀君)이 바로 하늘(환인 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동물세계를 대표하는 곰이 통과의를 거쳐 인간여자가 된 다음 대를 잇기를 원하자 천자인 환웅이 인간으로 잠시 화하여 결합한 결과물이라는 설정이 그러하다. 곧 신성한 신의 영역과 인간의 또 다른 배경인 동물의 세계가 인간의 영역에서 결합하여 진정한 또 다른 인간으로 잉태된다는 구조 자체가 일차적으로 성의 영역과 속의 영역의 조화,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구조는 “하늘을 숭배하는 ‘환웅 천손족’과 원주민인 ‘곰 토템족’이 서로 융합해 통혼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단군신선사상과 결합시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⁴⁹⁾

셋째, 한국의 정치사상적 원형은 태초부터 성/속 조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최치원(崔致遠)이 말한 우리 민족 고유의 풍류도(風流道)의 성격에 잘 나타나 있다.

최치원의 <난랑비(鸞郎碑)>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風流)라고 한다. 이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거니와 실로 유불선(儒佛仙)의 세 교를 포괄하여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집 안에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魯司寇: 공자)의 뜻이요, 무위의 일에 처하고不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주주사(周柱史: 노자)의 뜻이요, 일절 악행을 하지 않고 일체의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축건태자(竺乾大(太)子: 석가)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⁵⁰⁾

48) 『三國遺事』 卷1, <紀異>.

49) 최민자(2005), 62쪽.

50) 『三國史記』 眞興王, 37년 조. “三十七年春. 崔致遠 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

이와 같이 우리 고유의 ‘풍류도’는 당대에 말하는 유/불/도의 핵심적인 원리가 모두 갖추어진, 곧 성/속 조화의 도(道)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민족 정치이념의 원형적 성격의 하나가 성/속 조화의 가치를 추구하였다는 대목에서 한 가지 부기할 사실은, 그것의 무게중심은 어디까지나 신화가 아니라 정치. 신비가 아니라 합리, 불교가 아니라 유교, 곧 세속사회의 이치가 성역의 가치보다 우위를 두는 것이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주불보(儒主佛輔), 속주성보(俗主聖輔) 차원에서의 조화였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를 원광(圓光) 법사의 <세속오계>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에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유학을 다녀와서 가실사에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를 높이 예우하였다. 귀산 등이 그 거처에 가서 옷자락을 여미고 "속세의 선비가 어리석고 몽매하여 아는 것이 없사오니, 한 말씀 해주시어 평생의 계명으로 삼게 해주소서"라고 공손히 말하였다. 원광법사가 말했다. “불가의 계율에 보살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 가지로 구별되어 있으나 그대들이 남의 신하로서는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첫째,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요, 둘째,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는 것이요, 셋째, 벗을 신의로 사귀는 것이요, 넷째,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 생명을 죽임에는 가려서해야 한다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를 실행함에 소홀치 말라! ……” 귀산 등이 말했다. “지금부터는 이 가르침을 받들어 두루 실행하고, 감히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⁵¹⁾

사실 세속의 번잡한 인연을 끊는 것이 불가의 본의이지만 말 그대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는 철저히 세속에 응용된 것이었다. ‘군주에게 충성하고(事君以忠) 부모에게 효도하며(事親以孝) 벗에게는 믿음으로 사귀고

行 竺乾大(太)子之化也.”

51) 『三國史記』, 45卷, 列傳 5. 圓光法師. “時 圓光法師 入隋遊學 還居加悉寺 爲時人所尊禮. 貴山等詣門 具衣進告曰 俗士전蒙 無所知識 願賜一言 以爲終身之誠. 法師曰 佛戒有菩薩戒 其別有十 若等爲人臣子 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一曰事君以忠 二曰事親以孝 三曰交友以信 四曰臨戰無退 五曰殺生有擇 若等行之無忽 …… 貴山等曰 自今已後 奉以周旋 不敢失墜.”

(交友以信) 전쟁에서는 물러남이 없어야 하고(臨戰無退) 심지어 생명을 죽임에는 가려서해야 한다(殺生有擇)라는 5계는 불교계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속화는 물론 심히 유교화된 것이었다. 사실 동아시아에 확산되었던 모든 대승불교가 그러했듯이 삼국의 불교는 충분히 세속적이고 합리적이고 유교적이었다. 물론 앞에서 보았던 <안민가>도 같은 사례에 속한다.

무신정권에 의한 고려 왕조의 내적 위기와 몽골의 지배라는 현실의 굴욕과 패배가 얼룩진 13세기 후반 고려 사회에서 『삼국유사』적 대안은 유교적 세속주의/합리주의만으로는 그 외적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삼국사기』가 기록한 ‘현실의 역사’를 초월할 수 있는 대안적인 ‘꿈의 역사’를 열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는 불교라는 신앙과 신이라는 신화적 세계관을 심성적 도구로 사용하여 ‘꿈의 역사’를 편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²⁾ 하지만 그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세속의 문제를 타개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세속이나 유교와 대립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었다. 이는 또 당대까지의 불교와 유교의 정치사상사적 전개와 위상면에서는 ‘聖/俗의 긴장과 화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그것은 고조선시대 단군신화, 신라시대 세속오계를 거쳐 고려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태조 왕건의 <훈요10조>와 최승로의 <시무28조>에서 행하였던 유교와 불교의 역할분담 요구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이것이 두 문헌에서는 이른바 ‘사기(史記)’와 ‘유사(遺事)’라는 서명에서도 확인되듯이 적어도 정치영역에서는 유교가 주도하고 불교가 보조하는 위치로 자리매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성(聖)의 세계가 정치라는 속(俗)의 영역을 분리시켜 준 것임을 불자(佛子) 스스로도 인정하는 작업이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인정은 정치적 세속의 삶은 성역(聖域)인 부처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된다는 긴장의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52) 김기봉·김미애·김혜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사와 문학의 만남」, 『시민인문학』, 16, 2009, 90.

Ⅲ. 결 론

지금까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한국 정치사상의 원형을 검토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각각 12세기와 13세기 고려 국가사회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문헌화 작업이었으며, 그것은 당대의 고려인들은 물론 및 후대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정치사상의 원형을 제공하였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당대 최고 유학자에 의해서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시대 왕조사를 중심으로 기술된 관찬사서이고 『삼국유사』 역시 당대 최고 불학자에 의해서 불교사관에 입각하여 한민족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삼국시대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사료를 모아 편찬한 것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서술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이 연구는 양자가 본질적으로 공유하는 정치사상적 원형을 추적해보았다.

『삼국사기』는, 이미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처럼, “우리 해동의 지식인들이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은 모르고 외국의 역사만 있는 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은 읽지 않고 외국의 경서와 역사서만을 읽고 있다...”라는 <진삼국사기표>에서의 진술 등 몰주체적 자기 성찰을 행하면서 그 편찬의 『삼국사기』를 편찬한다는 저술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김부식의 변은 위로는 선대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唐)에 간들 있겠으며, 당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는 없겠는가?”라는 통일신라의 원효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으며, 후대로는 “…… 좋은 정치를 행하는 전통이 있을 때 중국(中國)이라 하고, …… 학술상의 전통이 있을 때 중국이라 할 뿐이다. …… 옛 성인들의 정치제도나 학술전통을 우리 동국이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든 지 오래 되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 먼 곳까지 가서 배우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조선 정약용의 주체의식의 선언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유교와 불교의 화해와 긴장 역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신라후기 한민족 고유의 정치공동체관의 원형을 탐색했던 최치원으로부터 고려 창업군주 태조의 <훈요십조>⁵³⁾와 최승로의 <시무28조>⁵⁴⁾의 시도에서 보이는 유(儒)/불(佛)의 긴장과 화해 노력의 고려 후기적 계승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현전하는 최고(最古)/최고(最高)의 한국 역사서인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치사상의 원형적 성격에 대해서는 5가지, 곧 최고의 국가정치이념으로 홍익적 공존주의, 통치이념으로 유교적 인의주의(仁義主義), 외교이념으로 현실적 사대주의(事大主義), 문화이념으로 보편적 중화주의(中華主義)와 자주적 민족주의(民族主義), 성/속 이념으로 유주불보(儒主佛補)의 성격을 지닌다는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이는 물론 삼국시대적 사유와 고려시대적 사유가 혼용된 것이지만 이미 한민족 최고의 두 역사서의 위상 속에서 면면히 한국인의 역사관념에 투영되어 왔기에 원형이라고 해서 부족할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면상의 이유로 여기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정치사회적 맥락 분석을 행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역사서 혹은 고전들이 그러하듯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시 당대의 지성사 및 문화사적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집체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각각 12세기와 13세기 당대의 정치사회적 배경은 물론 지성사적, 문화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맥락(context)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별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접수일 : 2014.09.25 / 심사개시일 : 2014.10.04 / 게재확정일 : 2014.10.25

53) 『高麗史節要』, 太祖26年4 4月 조.

54) 『高麗史』, 卷93, 崔承老 조.

<참고 문헌>

- 『三國史記』(金富軾 撰, 崔南善 編, 朝鮮光文會, 1914)
- 『三國遺事』(新刊本: 崔南善 校勘, 啓明俱樂部本)
- 이가원 역, 1998, 『삼국유사』, 태학사
- 이강래 역, 1998, 『삼국사기』, 한길사
- 『高麗史』, 『高麗史節要』, 『崔文昌侯全集』
- 『論語』 『孟子』 『漢書』
- 강성원, 1989, 「묘청의 재검토」 『국사관논총』 13.
- 高柄翊, 1969, 「三國史記에 있어서의 歷史敍述」 ; 1976, 『韓國의 歷史認識』, 創作과 批評社.
- 구대열, 2011, 『삼국통일의 정치학』, 까치
- 고익진, 1982, 「삼국유사찬술고」 『한국사연구』 38.
- 권희경, 2000,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려적 시각」 『서지학연구』 20.
- 김당택, 2001, 「고려 인종조의 서경천도, 칭제건원, 금국정벌론과 김부식의 삼국사기편찬」 『역사학보』 170.
- 김상현, 1986,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20.
- 김석근, 2002, 「단군신화와 정치적 사유: 한국정치사상의 시원을 찾아서」, 이재석 외, 2002, 『한국정치사상사』, 집문당
- 김영두, 1965, 「한국정치사상사」, 『한국문화사대계 II(상)』,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김영태, 1979, 『삼국유사소전의 신라불교사상연구』, 신홍출판사.
- 노태돈, 1998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 박두진, 2000,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한국학 논총』 23.
- 박진태 외, 2002,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 백산자료원, 1986, 『삼국유사연구론선집』 1, 백산자료원.
- 서영대, 1985, 「삼국사기와 원시종교」 『역사학보』 105.
- 손진태, 1949,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학풍』 2권 1/2호(『손진태선생전집』 6, 태학사).

- 신라문화선양회 편, 1991, 『삼국유사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 신복룡, 2011, 『한국정치사상사』(상), 지식산업사
- 申采浩, 1930, 「朝鮮歷史上—千年來第一大事件」 『朝鮮史研究草』(단체 신채호전집, 일조각, 1970).
- 申澐植, 1981,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 안외순, 2009, 「『三國遺事』에 관한 정치학적 一讀」 『溫知論叢』 23집.
- 안외순, 2005, 「세계화/정보화시대 동아시아 전통가치의 계승과 변용」, 『동양철학연구』 41집.
- 예철해, 2007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 윤내현, 2003, 『우리고대사』, 지식산업사
- 윤사순, 2001, 「한국 유학의 흐름과 『삼국사기』」, 『정신문화연구』 24,
- 이강래, 1996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 이강래, 2007, 『삼국사기형성론』, 신서원
- 이승환, 1997, 「누가 전통을 욕되게 하는가」, 『전통과 현대』 창간호
- 이은봉 엮음, 1994, 『단군신화연구』, 온누리.
- 이재호, 1983,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족자주의식」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
- 임태홍, 2007, 「유교가 한국 건국신화에 미친 영향」 『유교사상연구』 29.
- 정구복, 2004, 『삼국사기의 현대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 정연식, 1983, 「상고대 조선의 정치이념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 진덕재, 「민족주의 사학자의 『삼국사기』 인식」, 『역사와 현실』, 62권, 2006.
- 최남선, 1924, 「檀君古記箋釋」, 이은봉 엮음 『단군신화연구』, 온누리
- 최남선, 1930, 「고조선에 있어서 정치규범」, 『조선학보』 1930년 8월.
- 최민자, 2005, 「단군조선의 건국이념과 정치사상」,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정치사상사: 단군에서 해방까지』, 백산서당, 2005
- 최영성, 2001, 「삼국사기의 역사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13.
- 한영우, 1981,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高寬敏, 「三國史記の 國內原典」 『朝鮮學報』 39집, 1991
- 今西龍, 1930, 「朝鮮古史の研究」 『高麗史研究』.
- 末松保和, 1966, 「舊三國史と三國史記」 『靑丘史草』 2.

- 三品彰英, 1954,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 『大谷大學研究年報』 6.
- Shultz, E. J, 1991, 「金富軾과 三國史記」 『한국사연구』 73집(서울대 국사학과)
- 존. 씨. 재미슨, 1969, 「羅唐同盟의 와해」 『역사학보』, 44.
- 佐藤將之, 1995, 「三國史記의 政治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 홉스바움, 최영석 역,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 Jamieson, J. C, 1969, The Samguksagi and the Unification War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Ph.D.

Abstract

A Study of Korean Identity in the Political Thought: Focusing on the Samguksagi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Samgukyusa (the Residual Events of the Three Kingdoms) / Ahn, Woe-soon (Hanseong Univ.)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original form of political thought in Korea focusing on the oldest / the greatest Korean history books: *Samguksagi* (三國史記) and *Samgukyusa* (三國遺事). To do that, this study introduces existing researches on the two books, identifies their characters as political texts and then investigates characters in earnest as political thoughts in the dimension of the original form shown in the two books. As a result, the two books are proved to seek the principle of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仁義主義) - love and justice - as the superb political ideology, realistic toadyism as a diplomatic ideology, Sinocentrism (中華主義) with the pursuit of universal civilization, the principle of the peaceful co-existence founded on spontaneity and Yujubulbo (儒主佛補), Confucianism as the main principle and Buddhism as the auxiliary one) - the harmony of sanctity and secularity - in the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 In the case of *Samgukyusa*, it mainly deals with Buddhist materials in a Buddhist form and it ultimately seeks the Buddhist transcendental world but it is still no exception in the awareness on the secular world, especially on the political community called a state.

Key words: *Samguksagi*, *Samgukyusa*,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realistic toadyism, Sinocentrism, the peaceful co-existence, Korean political thoughts.